

로지아 Y LOGGIA Y

유주헌_제이에이치와이건축사사무소 YU, JOO HEON_JHY ARCHITECTS & ASSOCIATES

핵가족화와 가족의 파편화가 급속히 진행된 시대에 '로지아 Y'는 흩어져 살던 자매들과 조카들이 모여 살고자 집짓기를 한 이색적인 프로젝트이다. 함께 사는데 뜻을 모은 다섯 가족은 세대, 취향, 직업, 경제적 여건, 지난 삶의 흔적, 가족 구성, 생활패턴이 모두 다르다. 집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르다. '가족은 함께 하면 좋다'라는 고전적 가치를 고수하기에 현대 사회는 너무도 복잡하고 파편화 되었다. 하나의 집에 다섯 가지 삶의 스토리를 담고 비용을 나눠 내는 일은 다섯 채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집을 짓는 계획부터 시공, 소유지분 등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합의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상호 소통이 없으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로지아 Y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와 '개별적 삶'의 조화에 관한 건축적 제안이다.

가족 공동체의 재구성

다섯 가족은 모두 서울 아파트에서 흩어져 각자 살아왔다. 단독주택에 살고 싶었지만 서울에서 원하는 동네에 주택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손자가 생기고 개인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택에 대한 욕구와 가족과 같이 있고자 하는 바람은 더욱 커졌다고 건축주는 말한다. 결국 건축주는 각자의 아파트를 팔아 자산을 하나로 모으고 가족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짓고 사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여러 사회적 경제적 현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해체하고 핵가족화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로지아 Y는 흩어져 살던 다섯 가족의 재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섯 가족은 크게 할머니가 된 세 자매 세대와 그 자녀 세대로 구분된다. 첫째 자매는 은퇴하여 편안하게 지낼 노부부만의 아담한 공간을 원했다. 둘째 자매는 결혼하여 독립한 두 딸과 이웃으로 지내며 결혼 전처럼 지내고 싶어 했다. 셋째 자매는 독립하지 않은 두 딸과 함께 한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딸은 자기 일을 할 공간이 필요했다. 가족마다 요구되는 공간의 크기는 지분률과 관계되어 세심하게 조율하고, 가족별로 요구한 프로그램은 사용성과 연결되어 거주하게 될 층을 결정했다. 어느덧 할머니가 된 자매들은 계단을 이용한 입체적인 공간보다 편안하게 활동하는

단층을 선호했다. 3층의 둘째 자매와 독립한 딸 세대의 복층 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일 층으로 층 전체를 사용한다. 입체적 공간 구성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단단한 가족애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건축가의 욕심일지 모른다. 개별 세대는 사생활 보호와 수평 공간의 편안함, 내부 계단으로 인한 면적 손실 등 현실적인 생활편의에 집중하며, 모여 사는 즐거움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했다. 다섯 가족의 집짓기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도모라는 측면이 있기에 '개별적 삶'과 '개별 재산권' 등 현실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다섯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옥상 쉼터를 배치했다. 모든 세대가 편하게 모여 하늘과 양재천을 느끼며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넓은 텃밭은 도심 속 단독주택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공간은 주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시키며 세 자매의 즐거운 일터이자 마실 공간이 된다. 다섯 가족은 텃밭에서 자라는 유기농 채소처럼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방식의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현대사회에서 '대가족'이라는 생소한 가족 형태를 여러 관계적 약속과 공간적 배려로 '가족 공동체'와 '개별적 삶'의 균형을 맞추며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 로지아 Y는 가족 간에 흐릿한 관계 설정보다 분명하고 선택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시대에 맞는 가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집'에 대한 제안이다.

'개별적 삶'과 '함께하는 혜택'

다섯 가족의 공간구조는 모두 다르다. 직업, 취향, 생활패턴, 경제적 여건이 다르니 당연한 결과이다. 층별 면적이 다르고 일상을 담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개별성'의 희석을 의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아파트가 보여주는 '획일성'은 빼고 '편의성'과 '합리성'은 유지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게 했다. 로지아 Y는 공동체의 '함께 하는 즐거움'과 독립된 '개별성'의 조화를 통해 도심 속 우리 시대에 맞는 대가족을 재구성하고, 단독주택이 보여주는 맞춤 공간과 아파트로 대표되는 레디메이드 주택의 장점을 합치고자 했다. 다섯 가족이 동일 지분으로 공유하는 1층 임대 상가는 각 세대의 관리비용과 장기수선 충당 비용을 대신해 경제적 혜택을 공유한다. 상가에 들어온 꽃집은 로지아 Y를 꽃과 나무로 꾸밀 것이다. 옥상 텃밭에서 함께 재배하는 채소는 다섯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며 노동의 의미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일깨워 준다. 이 모두가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같이 할 때보다 즐거움의 크기가 크지 않다. 좋은 것이 유한한 우리시대에 파편화된 핵가족이 다시 대가족을 이루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로지아 Y는 잘 보여준다.

BIM. 소규모 건축에도 유용하다

다섯 가족이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건축을 시시각각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로지아 Y 같이 여러 주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건축적 요구, 지분율에 따른 면적 조정 및 건축비 조정, 다양한 디자인 요구 등의 이유로 계획안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BIM 설계 기법은 변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계획 초기부터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변경과 시각화가 동시에 가능하기에 다섯 가족의 디자인 미팅은 몇 회에 걸쳐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로지아 Y는 세대별 구조가 모두 다른 단독주택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이런 구조의 복잡성으로 시공자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고, BIM 모델은 간섭체크부터 시공자의 도면 이해까지 많은 역할을 하며 도움을 줬다. BIM모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효과와 이익은 더 크고 효과적이였다.

Building area 230.27m² Gross floor ratio 198.67% Building coverage ratio 59.90% Building scope 6F Structure RC Exterior finishes stucofles, brick, zink, exposed concrete Design team Park seong woo, Han Jung min Design period 2015.08 - 2015.10 Construction period 2015.12 - 2016.08 Structural engineer MOA Mechanical engineer HIMEC Electrical engineer SHINHAN $\label{eq:construction} \begin{array}{c} \text{Construction} \; \text{SEAWON} & \text{Photographer} \; \text{Yuseop} \; \text{Song} & \text{Editor} \; \text{Ku} \; \text{A} \; \text{Ram} \end{array}$





Health care is not just about treating illness; it is the whole-cycle care of individuals, including pre-care and post-care. In broader terms, the ultimate goal is "to build a healthy community". The site is located within a dense area of commercial facilities in Yangyang-gu, Incheon, and there is a park situated on the north side. In this place that is the center of this area, we put together a complex medical facility with specialized hospitals of each field, and planned a community-friendly hospital that is open to the community and connected with the surrounding greenery.

Based on this spirit, Mediplex Sejong Hospital not only has a strong presence among surrounding buildings, but also provides open space to the public. A transparent lobby that exposes several floors invites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nd community into the buildings. In addition to the hospital's original medical functions, it also provides cultural spaces, large-scale galleries, and other convenient spaces where artwork can be found. We

aimed for a Medical Complex space where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city and nature, community and wellness can join in harmony. According to the initial master pla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xpansion and growth of the hospital, the building was arranged adjacent to the park on the north side. As for the form of the building, programs were grouped together to shape independent masses. The interior is planned to achieve functional integration, and clear, concise masses and materials were used to articulate the image of complex medical facilities for the exterior. While creating a sense of unity as a whole through the variation of vertical patterns, each mass is given a distinct personality by making full use of the material's characteristics.

As a space where an assortment of complex programs and activities of complex medical facilities exist, the lower part is portrayed by a gradually changing pattern on the elevation, which is an abstraction of the change in

activities gradually spreading out from the public space. The ward, where the most repetitive actions take place, consists of a structured elevation with simple details that underline repetition.

Further inside the building, it is easy to see eco-friendly spaces that attract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inside. The three-story atrium lobby, courtyard for ward patients, various roof gardens planned for different patients on each floor, and separate resting spaces for the staff provide a bright and pleasant interior environment, resulting in better quality medical service provided by the staff and a better healing environment for patients.

In addition to these aesthetic and refined space plans, the building has been designed with the aim of creating the best possible medical space, in consideration of recent issues of patient safety and infection control. Isolation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 were established in the emergency centers and wards, and a One-Way Process was implemented by planning for clear

separation of clean areas and contaminated areas in all areas of the hospital. We implemented an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in the entire ward to create a pleasant and comfortable healing environment for patients.

Furthermore, we planned a progressive hospital that prevents infection and can improve hospital-visiting culture. In addition, the standard room of the entire ward is a 4-bed room, and glass walls are placed between the beds of all wards and intensive care units to provide the best and safest healing environment.

We hope our efforts of building an open hospital that provides the best medical services and communicates with the community will contribute to the making of a healthy community.











2nd FLOOR PLAN







11 RESTROOM

- 12 ENTRANCE
- 13 MASTER BEDROOM
- 14 DRESSING ROOM
- 15 GUESTROOM

16 BALCONY 17 LIBRARY 18 DECK



6th FLOOR PLAN



3th FLOOR PLAN



0 1 3 5m

1st FLOOR PLAN

SECTION